

부자되세요!

“새해에는 부자되세요!” 세상 누구나 부자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있으며,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새해에는 미국 경제가 나아지고 우리 서민들의 살림살이도 나아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이나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하는 문제만은 아니다. 돈에 대한 마음 지킴이다.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 돈을 지키지 못해 말년을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부지기수다. 즉 부자가 될려면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성품을 몸에 익혀 평생 몸에 베어 있어야 한다. 언젠가 투자 전문 사이트 더스리트닷컴에서 소개한 부자들의 10 가지 성품을 메모해 둔 것이 있어 이를 소개한다.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고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으니 새해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보면 어떨까.

첫째는 <인내>다. 내가 목표한 돈이 모일 때까지 <절약>하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유행은 소비를 조장한다. 사고 싶은 것 다 사고, 하고 싶은 것 다하면 어느 세월에 돈을 모으겠는가. 올해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참고 인내해야 한다.

둘째는 <만족>이다.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한다. 불만족은 과욕을 낳고 과욕은 과소비를 낳으면서 결국은 파멸에 이른다. 자본주의 사회의 광고 목적은 무엇인가. 소비자에게 끊임없는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욱더 멋있고 세련된 모습으로 바꾸기를 유혹한다. 그것이 <유행>이라는 괴물을 양산하는 것이다. 유행을 따르지 않으면 불행한가? 명품 가방이나 명품 물건을 갖고 있지 않으면 불행한가? 없으면 안되는 것, 꼭 필요한 것만 구매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억제하는 것은 <현실 만족>이라는 자족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세째는 <질서>다. 일상 생활이 규칙적이고 부지런해야 한다. 질서는 더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며 많은 문제들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해 준다.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하며, 매일의 계획과 실천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쳇바퀴도는 반복된

일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일상에 목표와 희망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질서와 도전>이다. 도전도 안정된 일상이 뒷받침되어야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다. 일상이 없는 도전은 무모한 허상에 대한 도전일 뿐이다.

네째는 <절제>다. 행복한 삶은 돈을 흥청망청 쓰는 삶이 아니다. 돈을 버는 목적도 비싼 집에 비싼 자동차에 과소비를 하기 위해서라면 부자가 될려는 목적이 잘못된 것이다. 부자의 목적은 더 큰 나눔의 삶을 살기 위함이다. 재테크란 단번에 일확천금 부자로 만들어 주는 방법이 아니다. 평생에 걸쳐 절제된 훈련이 재테크다.

다섯째는 <성찰>이다. 자신이 내린 결정을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재정적으로든, 사업이든 실수를 한다. 문제는 이 실수를 교훈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여섯째는 <창의성>이다. 경제 상황은 언제라도 예상치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변화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체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역경 속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 방법은 창의적 대체능력이다.

일곱번째가 <호기심>이다. 호기심이 있으면 공부를 한다.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책을 보고 정보를 수집하고 전략을 짜서 실천하는 것이다. 그 시발점이 호기심이다.

여덟번째가 <위험감수>다. 부를 구축하려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 위험요소가 없는 부의 추구는 없다. 다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하고, 경우의 수에 따른 결과에 대해 위험을 극복할 대체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위험요소때문에 시도마저 해 보지 않으므로 부자가 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이다.

아홉번째가 <목표지향성>이다. 목표를 세워 한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가 없는데 세부계획이 있을 수 없고, 전략이 있을 수 없다. 목표는 내가 가야 할 안내지도와 같다. 큰 목표가 흔들리지 않는한, 세부 목표는 수정될 수 있다.

열번째가 <성실과 노력>이다. 진정한 재정적 자유란 열심히 일해 돈을 벌고 그 돈을 관리하며, 가치를 늘려가는 과정에서 얻어진다. 일하지 않는 부자는 없다. 다만 일의 종류가 다를 뿐이다.

미국경제가 지금의 이 모양 이 꼴이 된 가장 큰 원인이 절제를 모르는 과소비 때문이다. 미국 경제의 70% 이상은 소비경제다. 미국의 비극은 1970 년도 금본위 제도를 폐지하고 달러를 세계기축통화로 지정하고서 부터이다. 마구잡이로 달러를 찍어내어 빚으로 소비를 촉진시켜 미국을 기아급수적으로 빚더미에 안게 한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미국인 전체가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려서 소비를 절제하고 근검절약하면 세계공황이 온다는 것이다. 그럼자 정부는 온갖 방법들을 동원해 여러분이 부자되길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인은 돈이 없다. 즉 예금은 없고 소비만 있다고 세계는 비웃는다. 미국 서민들이 돈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부동산 거품으로 집값이 오르는 것이다. 집값이 올라야 그 상승 수익으로 소비를 할 수 있다고 하니 미국 집값이 오르면 한인 여러분 장사도 나아진다고 보면 된다. 그러니 새해의 미국 경제 지표가 나아진다고 여러분의 살림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며, 아직은 때가 아니다. 새해에도 절약하고 열심히 일하는 방법 밖에 없다. 철저한 계획으로 도전하는 한해가 되시길 소망한다.